

대만내 한국기업의 마케팅과 특허 및 상표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지난 10 년간 대만내 한국 기업들은 하이테크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문화 및 창조 산업, 게임 산업, 미용 산업분야 등에서 출시한 상품중에서 이따금 상당한 화제를 모았으며 그중 일부는 대단한 「한류」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한류」 열풍은 대만과 한국 사이의 기업 교류, 산업 협력 및 경제 무역 투자를 더욱 빈번하게 만들었고, 적지않은 한국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여 교류 및 판매 기반을 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뷰티 산업의 변화입니다. 과거 대만 시장의 화장품 제품은 유럽과 미국의 브랜드가 지배적 이었지만, 지난 10 년 동안 「한류」의 유행과 그를 뒷바침하는 혁신 능력의 도움으로 한국화장품 브랜드가 나타났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깊은 한국화장품 그룹 아모레 퍼시픽(Amorepacific)이 2003 년 이후 대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동 브랜드로 백화점에 매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 상거래 기술기반의 미용그룹 미미박스(Memebbox)가 2016 년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여 자사 브랜드가 100 % 한국의 R & D 및 생산한 제품임을 강조, 대만에서 급속한 판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대만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예 : 「2017 년 타이페이 한류상품 박람회」, 한국 상품 박람회는 8 년째 개최되었는데 처음으로 타이페이에서 개최) 그리고 그런 한국제품 전시회 개최와 더불어 대만이 주관한 각종 전시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예: 「2017 년 타이페이 국제 컴퓨터게임 전시회」 한국은 가장 큰 참가국) 이러한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상품의 내만내 지명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는 한국 기업이 대만 시장내 시장확장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미용 제품이건 온라인 게임 이건 이러한 제품이 연구개발단계부터 완제품, 그리고 광고 마케팅내지 대만내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합니다.

대만 특허청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2 년 이후) 한국은 계속하여 대만내 특허를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 개 국가중 하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2014 년 이후부터 한국이 상위 5 개 국가중 하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만내 외국인 특허, 상표 출원건수는 미국과 일본이 주류이지만, 2002 년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기업도 점차적으로 대만내 특허, 상표등록을 중시하고 있고 해당 상품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대만내 한국문화와 기술이 이전되고 발전하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대만내 특허 및 상표등 출원 및 신청을 통한 대만내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하여 기대 이상의 결과와 혜택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첨부: 각종 통계 수치

